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5호 【루계 제22997호】주제 99 (2010)년 2월 14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아랍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령도자** 각하

나는 각하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와 아울러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귀국인민이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0년 2월 11일

디마스끄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 수리아국방상이 선물과 대형꽃바구니를, 중국항일 혁명렬사 장을화동지의 가족과 재로씨야동포 정일심가족, 일본의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수리아 군대 및 무장력 부총사령관인 알리 무함마드 하비브 마흐무드국방상이 선물과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과 대형꽃바구니를 무함마드 알 파일 쉴레이만 수리아국방장 조직 및 행정국 의례부장이 8일 최수현 수리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을화동지의 가족과 재로씨야동포 정일심가족이 12일과 13일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 한편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나다 다카시, 일조호축전 교도부인회의 대표 스에모토 히나코가 12일 꽃바구니를 각각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총비서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

2.16경축 제증조신인총련합회 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은복 제증조신인총련합회 의장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경축보고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조선인민의 가장 큰 행복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1일 단마신문 《로플러 저널》 1일 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사진들을 모시고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백두산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백두산은 조선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산으로서 예로부터 조종의 산, 명산으로 알려졌었다. 백두산밀영에는 김정일각하께서 탄생하신 소박한 귀촌집이 아아히 남아있는 정일봉을 배경으로 서있다.

이곳에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탄생하시었다. 그의 탄생은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기약하는 찬란한 해돋이였으며 조선의 영광, 조선인민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의 혈통을 이으시고 백두산의 정기를 한몸에 안으시고 김정일각하께서는 백두밀영의 눈보라소리와 항일혁명의 총포성을 자

각한 제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결연히 투쟁하여야 한다는것,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라는것, 이것이 바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주장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이 통속화, 집약화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조선의 북남관계발전의 기초로, 근본적으로 되게 하였다.

지난 기간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사건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제시하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아말로 조선통일의 불변의 가치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었다.

로씨야신문 《나호드진스끼 라보치》 1월 29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인민적품모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 담화 발표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중앙지도체사회 발표회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2.16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중앙지도체사회 정제 성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림으로써 조선인민의 보다 밝은 앞날을 위하여 그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김정일각하는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으로써 나라와 민족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리신 탁월한 국가지도자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새해공용사절을 높이 받들고 다시한번 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우리는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 당 창건 65돐에 즈음한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평양 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해,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번영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온 나라 인민이 심장의 피를 끓이며 화답해나섰다. 13일 김일성광장에서는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백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10월의 경축광장에 사회주의만세의 환호성이 힘차게 터져오르게 할 10만여명 수도시민들의 혁명적기상과 열정이 대회장에 차넘치고있었다. 대회장한가운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관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창건 65돐을 우리 당력사와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자!》 등의 구호관들이 세워져있었다. 최태복동지, 김중민동지, 양형섭동지와 박범기 내각부총리, 군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일꾼들, 로력영웅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섰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영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이어 평양밀가루공공장기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자장 로원철이 토론하였다. 그는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아안은 수도로동계급의 가슴은 언제나 당의 위업에 충직하여 온 영웅적조선인민의 위대한 투쟁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오늘을 대고조에서 세기적기적과 위업을 창조해갈 철칙의 신념과 의지에 충만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토론자는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며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의 만복을 안겨 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공장을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식로기기로 튼튼히 꾸릴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을 총동원시켜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생산공정의 무균화, CNC화를 하루빨리 실현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과 함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이 크게 벌려나가며 실천적방법으로 대중을 공동구호에 제고시킨 전투적관철정신으로 힘있게 달려나갈것을 강조하였다. 만경대구역 칠골농장 관리위원장 조일순은 농업근로자들을 인민생활향상의 주동전선에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새장같이 간직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해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드는 데 참가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로보트공학연구소 소장 김혁은 올해의 대진에서 승리의 비결은 첨단을 돌파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전체 과학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동력에서 선군조선의 지식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선진이 첨단과 과학의 《1211고지》라는 것을 명심하고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 조직지도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켜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기술공과

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데서 힘있는 총포기, 가속기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명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구역당위원회를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정예부대로 꾸리며 각종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역할을 배방으로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대고조사상과 강행군정신으로 숨쉬며 행동하도록 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입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인 민심을 틀어쥐고 광범한 대중을 선군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정진력을 총동원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정치사업으로 대고조의 불도가 내에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불어 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영도를 일으키는것과 함께 주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사회주의덕을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와 혁명의 수뇌부뒤에 굳게 뭉친 친만군민의 입심단결의 위력이 있어 우리의 승리는 확실히 이라고 하면서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당의 호소에 피뎠는 심정으로 화답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김일성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는 대정치적승전으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대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 위대한 선군령장 모시여 백승떨치리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대국승리의 남을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속에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마치고있다.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철석의 각오와 의지를 안고 세기를 주름잡는 창조와 비약의 열풍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하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2월의 봄빛이 뜨겁게 물러든다.

혁명의 선지가 자리잡은 저 멀리 삼지연지구에서는 백두의 서리꽃이 장쾌한 설경을 펼쳐고있으며 기적과 혁신의 기상 나래치는 강성대국 건설장 그 어디거나 전제 군민이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릴 축원의 꽃다발을 삼가 엮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뜨거운 지성과 간결한 소원으로 꽃피우는 김정일화가 곳곳에 2월의 명절을 기다려 마음을 한껏 터치고있으며 모든 가정과 일터마다 다 민족최대의 명절을 마중하며 환희에 넘쳐있다.

우리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에 대한 뜨거운 추억으로 흐르고 장군님의 비범한 위인상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며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경탄으로 설에 이고있는 선군조선의 경사스러운 2월.

김정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며 영광의 2월이 안겨주는 우리의 리상과 모두는 얼마나 원대하고 이해와 더불어 꽃피어갈 인민의 행복은 또 얼마나輝煌하고 아름다울 것인가.

천만민중에게 끝없는 활력을 부어주며 강산에 넘치는 2월의 환희를 소중히 안아볼수록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최첨단건설장비의 군인건설자들을 찾으신데 이어 근위 서울유공수제 105명사단관하 구분대의 전투훈련을 보시는것으로 올해 혁명실록의 첫페이지를 수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뚝이 일어난다.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는 50년이 되는 격동적인 이해의 정초에 선군과 더불어 유서깊은 근위 서울유공수제 105명사단관하 구분대 전투훈련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천지를 뒤흔들던 그날의 승리의

포성은 뜻깊은 2월의 환희에 넘쳐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역사와 진리를 새겨주며 진폭이 큰 메아리로 힘차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김정일동지가 령도하기때문에 앞으로 드뭇없이 계속 전진할것입니다.》

올해공동사업에는 대고조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은 위대한 선군의 총애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지적되어있다.

갈을걸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행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선군의 길을 따라 이 땅의 모든 번영과 행복이 온다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천리헤인의 예지와 비사히 풍부하며 경멸을 지니신 특출한 정치실력가이시며 끝없는 열정과 무비의 담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회세의 정치원로.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자욱자욱마다 선군의 강렬한 의지와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려있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불세출의 위인의 거룩한 행로이다.

일찍이 위대한 백두산장군님의 올대나 뜻을 이어받으시어 력사무대에 나서신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얼마나 비범하게 흘러왔는가.

사림보다 이웃도 없는 백두산기슭의 소박한 툰나무귀를집, 초포성이 그칠새 없는 항일전투에서 탄생하여 배재산의 돌격구령소와 함께 성장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그 시절부터 장군가문의 위대한 군인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항일혈전의 길에 자욱을 남기시고 반미대전의 초열을 헤치시던 나날을 돌이켜볼수록 정녕 그이처럼 반제전선의 격렬한 포화속에 성장한 위인은 이제 생장 더는 없다는 생각으로 눈물이 맺혔다.

위대한 장군님을 진두에 모시여 우리 혁명이 펼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년대기들도 더불어 볼수록 가슴뜨겁다.

우리 당건설사를 펼치면 당의 령도자로서의 비범한 품격과 자질

이 안겨오고 군건설사를 펼치면 선군령장의 위풍과 명군술이 넘쳐나며 문학예술의 감미로 번져나온 문학의 천재, 예술의 대가의 위인상이 안겨오고, 로동당시대의 외교사를 보면 세련된 외교술로 세상을 놀래우신 현대외교의 거장의 모습을 아려오고 김정일조선의 건축물들을 보면 건축의 영재이신 그이의 비범한 실력이 가슴을 울린다. 말 그대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

세계가 찬란하고 만민이 우리러는 절세의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이시지만 그이께서는 자신을 군인이라 하시며 위대한 군인의 성스러운 한생을 수놓으신다.

위대한 군인의 한생, 바로 여기에 선군을 만민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세계자주화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수호하시며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업적에 대한 력사적총화가 있다.

지금도 어촌혁명사적지의 평균봉은 혁명의 총대로 김정일조선의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시는 천하일명장, 백두령장의 천재적예지와 뛰어난 명군술을 승업히 전하고있다.

어은동, 위대한 군인의 한생으로 수놓아진 우리 장군님의 병사시절, 총참모장 시절이 이곳에서 비범하게 울려퍼졌다.

위대한 력사가 새겨진 이은동에서 사팔들은 청년장군시절의 우리 장군님의 전설같은 병사생활의 인생체험기를 보게 되며 불멸의 군사사상론과 탁월한 명군술, 태양의 인덕으로 빛나 승고한 위인상을 가슴에 새기게 된다.

남령리 총대를 사할하고 군사를 중시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40여년전 그때에 벌써 위대한 선군령장이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사격하신 보병총과 전설적인 명사격술을 보여준 목표판앞에서 명군을 모르는 정치가는 진짜정치가가 아니라, 현대정치가의 권위와 역할, 그의 실력은 비상한 군사적지략과 담력, 뛰어난 명군술에 있다, 나는 군사제일주의를 주장한다, 나는 무

엇보다도 총대를 중시하고 언제나 총대를 제일시한다는것을 숨기지 않으며 문학예술의 감미로 번져나온 문학의 천재, 예술의 대가의 위인상이 안겨오고, 로동당시대의 외교사를 보면 세련된 외교술로 세상을 놀래우신 현대외교의 거장의 모습을 아려오고 김정일조선의 건축물들을 보면 건축의 영재이신 그이의 비범한 실력이 가슴을 울린다. 말 그대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

세계가 찬란하고 만민이 우리러는 절세의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이시지만 그이께서는 자신을 군인이라 하시며 위대한 군인의 성스러운 한생을 수놓으신다.

위대한 선군령장께서 올리신 그날의 총성은 총대를 틀어쥐고 백두산혁명군군의 광명한 미래를 황한 설계도가 펼쳐졌으니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와 인류앞에 쌓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나.

선군과 더불어 뜻깊은 올해의 정초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유공수제 105명사단을 찾으신여 판하구분대의 전투훈련을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러도 찬탄하듯는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대문을 열어제기실 백두령장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하늘땅을 뒤흔들며 울린 그날의 장엄한 포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무장으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힘있게 선전한 력사의 포성, 승리의 포성이었다.

선군은 조선혁명의 장구한 실천투쟁에서 검증된 필승보검의 진리이다.

사회주의복이자 위인복, 선군복이며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운명이며 민족의 운명이라는것이 이 땅에 굽어치는 전인민적사상장이었다.

연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우월성,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의 혁명실천과 현실에서 증명되고 날로 더욱 뚜렷이 파시되고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위대한 선군사상을 백승의 보검으로, 영원한 투쟁의 기치로 역세게 틀어쥐고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의 빛발아래 이 땅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서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올해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아버지수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주체의 길,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환평생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 나가며 수령님의 생전의 법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주제 90 (2001)년 1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 세기를 맞으며 지나온 세기를 돌아보시며 수령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셨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헤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언제나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사회주의수호선의 위대한 승리로 20세기를 계속하고 희망찬 새 세기에 들어선 그 시각에도 그이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을 그리시며 우리 혁명의 지나온 년대들을 깊은 추억속에 돌이켜 보시는데는 것이었다.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이는 장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다시금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20세기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칠수 있었다. 20세기에 우리 수령님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정치가는 없다. 수령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위인이시었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계속 하시여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새 세기에도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승리로 힘있게 고구추출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위업은 주체의 혁명위업이며 우리가 가는 길은 수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주체의 길입니다, 주체의 길은 백전백승의 길이며 수령님의 존엄은 영원한 승리의 기치입니다

다시 헤쳐오신 눈보라길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진군길의 앞장에는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이 서있다.

공장파 기업소, 탄광파 광산 등 사회주의 건설장들을 마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가고있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분출되는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게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강성대국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로동계급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불보다 뜨거운 사랑이아랄로 영웅적로동계급으로 하여금 기적과 혁신, 비약을 일으키게 하는 원천이다.

주제 97 (2008)년

1월 강제정신장조 100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다시사나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북방의 한 광산을 찾으신 이야기는 오늘도 로동계급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전하여 주고있다.

그때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광산일군들은 목이 메어 감사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히려 일군들을 자애로 넘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광산지구에 들어서니 정신이 번쩍 든다고, 광산전경만 보아도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많은 일을 하였다것을 알수 있다고 대견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는 일을 많이 한 광산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며칠전에 자강도에 왔다가 이 광산을 돌아보지 못하고 간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왔다고 다정히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순간 광산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솟구치는 격정으로 하여 세

차게 뉘엿였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 멀고 험한 길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있어서 한초한초의 시간은 천금보다 귀중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들은 목이 메어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정녕 한 나라의 령도자가 평범한 광부들을 찾아 수천리는 먼 보라길을 되돌아 찾아온 이분 전설같은 이야기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 광산의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오랜 시간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광산로동계급의 영웅적위업에 대하여 거듭 치하해주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었다.

광산을 떠나실 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과 헤어지는것이 못내 아쉬우신듯 차창을 여시고 오래도록 손을 흔들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엔 충실한 로동계급이 있고 로동계급의 심장속엔 언제나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만이 팍차있음을 가슴뜨겁게 전하는 혼연일체의 뜻깊은 회록이였다.

본사기자 백영미

위인종의 위인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탁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령도자, 인민의 지도자! 라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에 대하여 뜨겁게 칭송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품모를 다 갖추었습니다.》

탁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령도자, 인민의 지도자! 이룩하신 업적의 폭과 깊이, 그 불멸함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인민의 령도자가 갖추어야 할 고매한 덕성과 품모에 있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위인종의 위인이시었다.

우리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과 주체사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선전보급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여 주체사상이 명실공히 인민대중화되고, 말하자면 내가 우리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을 김정일동지가 무성한 숲으로 말씀올린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김정일동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사업은 물론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맡아오셨고, 그이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령도하려고 하시면서, 그 때부터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고, 우리 인민이 오일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 더욱 안정된 생활을 누리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위인!

—우리가 가는 길은 수령님 열어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환평생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 나가며 수령님의 생전의 법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주제 90 (2001)년 1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 세기를 맞으며 지나온 세기를 돌아보시며 수령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셨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헤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언제나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사회주의수호선의 위대한 승리로 20세기를 계속하고 희망찬 새 세기에 들어선 그 시각에도 그이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을 그리시며 우리 혁명의 지나온 년대들을 깊은 추억속에 돌이켜 보시는데는 것이었다.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이는 장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다시금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20세기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칠수 있었다. 20세기에 우리 수령님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정치가는 없다. 수령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위인이시었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계속 하시여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새 세기에도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승리로 힘있게 고구추출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위업은 주체의 혁명위업이며 우리가 가는 길은 수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주체의 길입니다, 주체의 길은 백전백승의 길이며 수령님의 존엄은 영원한 승리의 기치입니다

불멸의 업적 영원히 빛내여 나가도록

조국과 인민, 인류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업적과 불멸의 업적이 집약되었고 수령님의 존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위대한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높이 들고 주체의 한길로 가자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커다란 격정속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제일 큰 념원은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였다, 인민들의 행복은 수령님의 기쁨이었고 락이였다, 수령님께서 인민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부럽없이 살게만 되면 100살까지 살수 있다고 하시였는가, 우리는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승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 사색과 실생활들을 아버지수령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사업으로 지향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겨안고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용진

기록영화 《위대한 계승》 상영

【평양 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기록영화 《위대한 계승》이 13일 인민혁명관에서 상영되었다.

당과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영화를 관람하였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의 중추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이끄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수록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완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경제건설과 문학예술분야에서 세기

적전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실록을 수록한 기록영화 《위대한 계승》이 13일 인민혁명관에서 상영되었다.

영화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불세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한 사실들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비범한 담력과 배짱, 뛰어난 지략과 명군술을 지니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력사적사건을 보여주는 화폭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격정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사상의 강자, 인민의 강자로 자랑난 인민군인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주시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주력군으로서의 사명

파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 장병들도 화면에 펼쳐졌다.

항일혁명의 불길같은 창조된 동지애의 전통을 이어서 혁명전사들의 삶과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며 없애는 사랑과 믿음의 정기로 수령, 당,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리적으로 결합된 불세의 혼연일체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를 보여주는 화폭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올해공동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며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위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주력군으로서의 사명

위인종의 위인

우리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과 주체사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선전보급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여 주체사상이 명실공히 인민대중화되고, 말하자면 내가 우리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을 김정일동지가 무성한 숲으로 말씀올린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김정일동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사업은 물론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맡아오셨고, 그이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령도하려고 하시면서, 그 때부터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고, 우리 인민이 오일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 더욱 안정된 생활을 누리

기록영화 《위대한 계승》 상영

【평양 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기록영화 《위대한 계승》이 13일 인민혁명관에서 상영되었다.

당과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영화를 관람하였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의 중추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이끄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수록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완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경제건설과 문학예술분야에서 세기

적전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실록을 수록한 기록영화 《위대한 계승》이 13일 인민혁명관에서 상영되었다.

영화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불세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한 사실들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비범한 담력과 배짱, 뛰어난 지략과 명군술을 지니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력사적사건을 보여주는 화폭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격정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사상의 강자, 인민의 강자로 자랑난 인민군인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주시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주력군으로서의 사명



선군의 위력 떨치는 내 조국강산에 인민의 행복 넘친다

본사기자 정순애 에 찍음



# 2월의 강산에 차넘치는 다함없는 흠모와 축원의 꽃바다

## 제 1 4 차 김 정 일 화 축 전 장 에 서

### 꽃송이 바다에 비낀 결사옹위의 신념

### 축전장에 펼쳐진 《선군11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명실공히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이다.》

제 1 4 차 김 정 일 화 축 전 장 에 태양의 꽃바다가 펼쳐졌다.

태양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는 데서도 우리의 혁명무력은 언제나 제일 선두에 서있다.

하기에 참관자들은 축전장의 기본증심면역을 꼭 채운 조선

#### 무력기관

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전시대에 앞에서는 이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하며 이번 김 정 일 화 축 전 에 서 도 우리 인민군대가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 정 일 장 군 님 의 숭고한 영상을 더욱 빛내이며 전시대에 만발한 1 0 0 0 여 상의 태양의 꽃!

우주에 닿은 조선의 위력을 시위하는 《광명성 2 호》와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

#### 전시대들을 돌아보고

은 창조물인 만수대거리, 자립경제의 위용을 과시하는 주체철생산기지, 비날론생산기지를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성한 거대한 전시대에 빛나는 《김정일 강성대국》이라는 글발은 만사람을 끌어들여 격정시킨다. 민족의 영광과 존엄, 선군조선의 위력, 기상이 당찬 이 글발을 형성하며 인민군인들이 터치되었을 환희와 걱정이 메아리쳐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

#### 다함없는 흠모와 축원

수놓은 최고사령관기의 원수별에도, 전시대에 새긴 《대륙이여 우리는 장군복》이라는 글발이며 번두리를 장식한 한겨울의 푸른 함대와 전나무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부대군인들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는 그런 뜨거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조선인민군 김창섭소속부대전시대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장군님을 칭송하고 노래하는 축전장인데 최대의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추운 겨울날 백두산에 올라 소백수물을 정히 머가지고와 전시대를 장식한 인민군군인들, 이 세상 어느 군역사에 이렇듯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불같은 진정과 숭고한 의리를 지닌 병사들이 있었는가.

혁명의 수뇌부를 위함이라면 온몸을 바치고 명도자께 대를 이어 변함없는 충정을 다해가 는 것이 바로 우리 인민군인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용모인 것이다.

2월의 축전장에 펼쳐진 태양의 꽃바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뜨겁게 안아보았다. 내 조국의 천리방진을 뒤덮은 수령결사옹위의 총대술을...

글 쓴사기자 허명숙  
사진사기자 김광희

#### 축전장에 펼쳐진 《선군11경》

국전시대, 볼수록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숭엄히 돌이켜보게 하는 전시대들이었다.

《이 땅의 전진길마다에 빛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을 한복의 진광판에 담을 수 없어 우리는 태양의 꽃바다 중심에 이렇게 울림폭포를 형성하였습시다.》

꽃바다, 절경바다를 이룬 축전장의 전경에 감탄을 터치며 걸음을 옮기는 참관자들에게 태동지도국의 해설원이 하는 말이였다.

불멸의 꽃바다 중심에 이제 틀게 펼쳐진 《울림폭포》, 산중의 아름다운 풍치를 그대로 옮겨온듯 폭포소류가 정하게 울리는 생동한 그 화폭은 참으로 깊은 감동을 안겨준다.

강제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그대로 축전장에 옮겨온듯 눈부신 불야성으로 참관자들을 매혹시키는 전시대는 《선군 1 1 경》의 하나인 《장자강의 불야성》을 배경으로 형성된 정보산업지도국 전시대이다.

《범안리의 선경》, 《태동단의 감자꽃바다》, 《류다문 풍광》, 《미곡밭의 가을풍경》이 형성된 진광판들과 함께 이제 틀게 펼쳐진 수산성, 묘향지도국, 조선인민군보훈회사, 봉화지도국전시대를 지나면 《한드레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전시대에서—

## 불멸의 꽃이 전하는 사연

### 간절한 소원 담아

《우리 김일성사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전시대에는 온 나라 청소년들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청년동맹인 손원남동무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800만 청소년들의 첫째가는 소원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담을까 하고 궁상을 모았다. 그러다가 수백상의 만발한 김 정 일 화 축 에 는 높이 솟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형상하기로 의결이 합쳐졌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 청년들의 또 하나의 소원은 강성대국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시대 광역에 형성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 호》, 《광명성 2 호》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과 《철단을 통과하라》, 《더 높이, 더 빨리》라는 글발들을 가리키었다.

《이 모든 형상들에는 바로 강성대국건설대진의 앞장에서 시대의 영웅이 되려는 우리 청년들의 의지가 비껴있습니다.》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 장군님을 더 높이 받들고 노래하고자 태양의 꽃도 한 꽃대에 두중이, 세중이, 무려 네중이까지 피워낸 기록하고 미더운 청년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조국애로 불타는 청년의 심장이 점멸 못할 목표가 있리라.

배부분에 꽃들로 형성한 《금메달》이라는 글발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단위의 열골이나 살리지는 글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금메달로 결사옹위해 나가려는 체육인들의 맹세였다. 그 글발을 보느라니 외국원정정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저마다 위원회의 《김정일화 김 정 일 화 축 전 에 는》에 달려가 태양의 꽃들에 지성을 바치던 체육

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경기장을 달릴 때에도 불멸의 꽃을 마음속에 안고 달린 그들이 아니던가. 진정 흠모의 꽃, 신념의 꽃을 심장에 간직한 그 가슴들에서 어찌 금메달이 빛나지 않을 수 있랴.

우리는 확신했다. 뜻깊은 2월에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이 피운 태양의 꽃, 그 꽃처럼 맑고 많은 금메달로 그들은 올해에도 조국을 빛내일 것이라고.

황룡경을 펼친 축전장의 중심에는 김 정 일 화 가 만발한 하나의 커다란 꽃바구니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축전장에 외부성이 펼쳐진 류다문 전시대형상이다.

꽃축전의 특성을 살려 다른 장식물들을 쓰지 않고 붉은 꽃잎을 활짝 펼치고 아름다운 빛을 뿜는 불멸의 꽃 김 정 일 화 와 여러가지 색깔의 식물로 조화롭고 립체감이 나게 형성한 그 꽃바구니형식의 전시대를 보며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처럼 훌륭한 인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우리와 만난 외부성의 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성에서는 뜻깊은 해에 열리는 이번 축전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들여왔다. 성의 일군들은

### 태양의 꽃과 《금메달》

축전에 참가한 체육지도위원 불멸의 꽃으로 당기를 형성한 것도 특색있지만 전시대의 아

### 남다른 비결

조선혁명박물관전시대를 찾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김정일화를 이렇게 류달리 크고 황룡하게 꾸민데는 그 무슨 남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박물관일군들과 종원들의 불타는 열정과 애정을 담아서인가 한 줄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 해외동포축하단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1 3 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제미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 제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 제뉴질랜드동포련합회축하단과 제도이힐란드동포협력회 회장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해외동포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나라의 통일

일을 위하여 헌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담아 그의 동상에 꽃바달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고 있다.

방문기간 생방송이 애조관제와 평화협정체결, 체제해체, 6자회담개개 등 신뢰를 조성하여 조선반도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외무성대담단이 중국을 방문한것과 관련하여 1 3 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김계관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무대위 중국정부 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의 초청으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다.

12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축하단성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서 탄성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축하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사 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주 영일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축하단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사 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주 영일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축하단이

## 제 1 9 차 《백두산상》 국제회거축전에 참가할 선수들 도착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제 1 9 차 《백두산상》 국제회거축전에 참가할

로씨야, 스위스, 프랑스선수들이 1 3 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마차르, 벨라루

씨, 오스트랄리아, 우크라이나, 영국선수들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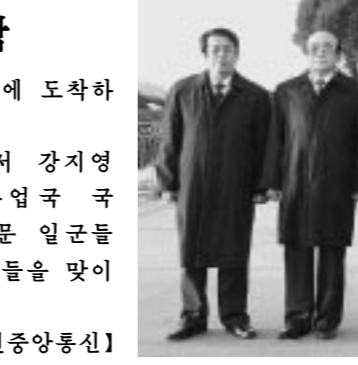
##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공연 진행



## 해외동포축하단들 도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최은복의 축하단, 장운국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미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 김현환사무총장과 리지숙 제도이힐란드동포협력회 회장이

1 3 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을 관계부문을 맞이하여 해외동포들을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재미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



재뉴질랜드동포련합회축하단

【평양 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2. 1 6 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장군님 가까이 우리 삽니다》가 1 3 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기악과 노래 《축원의 막을 올린 출연자들은 녀성독창 《아버지생각》을 비롯 한 여러 종목에서 숭고한 애국애민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위대한 김 정 일 장 군 님 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감명깊게 형성하였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안동춘문회상, 관계부 문 일군들, 시대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계속된다.

우아한 볼동과 세련된 연주기법으로 하여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남성독창 《높은 별 넘어가자》, 《내 마음 팔지 않으니》, 혼성중창 《2012년을 향하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고귀한 출연자들은 녀성독창 《아버지생각》을 비롯 한 여러 종목에서 숭고한 애국애민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위대한 김 정 일 장 군 님 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감명깊게 형성하였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안동춘문회상, 관계부 문 일군들, 시대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계속된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



재뉴질랜드동포련합회축하단



재도이힐란드동포협력회 회장

# 백두산기슭에 펼쳐진 열렬한 총정의 세계

## 2.16 경축 얼음 조각 축전장을 돌아 보고

인민의 다함없는 축인 넘치는 2월, 백두산기슭에 뜨거운 화폭이 펼쳐졌다.

천변만화는 백두산이 신기한 조화를 부렸는가, 백두의 설경과 더불어 펼쳐진 2.16 경축 얼음 조각 축전.

세상에 눈이 하도 그리워 그것을 비행기로 실어다 빙설의 기쁨을 맛보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빙설의 얼음축전을 펼쳐놓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열렬한 태양호의 마음을 안고 사상에 숭고한 높은 경지에서 눈부신 빛을 뿌리는 훌륭한 축전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2.16 경축 얼음 조각 축전! 이것은 꿈에도 령도자를 그리워 사는 전사들의 심장속에서만 분출될 수 있는 뜨거운 총정의 창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지금 노래까지 지어 부르면서 온

세상에 정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햇살같이 하얀 백두의 흰눈을 맞으며 우리는 2.16 경축 얼음 조각 축전이 성대하게 펼쳐진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삼지연못가로 향하였다.

눈덮인 밀림속을 걸던 우리는 황홀하게 펼쳐진 화폭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백옥을 다듬어 세운듯 이처럼 멋쟁이일가, 수정을 정교하게 다듬은듯 이렇게 맑을가.

우리는 개신문형식의 《강성대국대문》에 들어섰다.

누군지 강성대국에 들어서려던 문고리를 쥐어보고 이 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안내자의 웃음소리 말이지만 참관자들은 무심히 스치기 않는다.

봄바는 속에서 문고리를 미처 잡아보지 못하여 다시 걸음을 돌려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강성대국대문》을 지나면 눈

부신 햇빛이 무지개색같이 아롱지는 수정같은 얼음기둥, 얼음판간, 얼음공들로 우아한 건축미를 이룬 다리 위에서 누구나 야! 하고 경탄을 터친다. 그리고는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설경속에 크게 안겨오는 얼음꽃바구니 속에 붉게 핀 김정일화며 흰눈덮인 백두산 밀영도향집, 정일봉하늘가에 두둥실 뜬 보름달, 봉화가 활활 타오르는 주체사상탑... 우리는 어느덧 백두산하늘 아래 툄트 담지 삼지연못가에 이르렀다.

손꼽음모양의 건축양상을 한 삼지연군문화회관 정원에 펼쳐진 얼음 조각 축전장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백옥을 다듬어 세운듯 희미한 눈자국을 비추는 얼음 조각들은 보물창고의 기묘한 아름다움,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이 해방된 조국을 그리워하던 열사의 지점에서 돌격대원들

과 이 고장 인민들이 펼쳐 보이는 휘황한 앞날을 띠고 있다.

그처럼 우리가 바라는 사회주의강대국이 어떤것인가, 인민이 바라는 리상사회가 과연 어떤것인가.

2.16 경축 얼음 조각 축전의 발자, 창작자들은 618 건설돌격대 인민보안성사단의 평범한 돌격대원들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축전마당을 펼치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해마다 2월이 오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에 더욱 불타는 그들의 생각은 많았다.

어떻게 하면 2월의 명절을 가장 뜻깊게 맞이할 것인가...

함박눈이 실새없이 내리는 백두의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백두산의 흰눈과 얼음으로 조각을 창작하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얼음 조각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경사로운 명절을 맞이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돌격대원들은 자기들이 만든 얼음수정다리 위에서 정월대보름날 달맞이를 하게 되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달이 떠오르면 그 고장의 큰 다리로나가 그우를 열두번 왔다갔다 하며 달맞이를 하면서 마음속 소원을 빌었다고 하지만 돌격대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백두의 하늘가에 두둥실 떠오르는 대보름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누구나 자기들이 건설한 창조물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으로 아뢰었다.

그런데 이런 기적도 있는가, 돌격대원들이 그 열렬한 소망이 건설처럼 이루어졌다.

—우리 장군님께서 오시었다!

초강도강행군, 빨치산식대장정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온 나라를 종횡무진 하시던 백두명장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삼지연못가에 오시어 돌격대원들이 건설한 창조물을 보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돌격대원들이 건설한 삼지연못가음로점을 돌아보시고 웃가슴에 꾸러진 인민의 휴양지에 대한 이야기도 즐겨 들

고코른 그들의 지성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리라.

제나들의 조각작업을 만들고 얼음 조각효과를 관찰하느라 한밤을 지새우던 그 나날들을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리라.

2월의 명절이 다가오는 요즘 각계층 당사자들, 이 고장 인민들이 2.16 경축 얼음 조각 축전장을 찾았다.

백두의 하늘은 대지에 흰눈을 꽃보라처럼 뿌려주고 소백수는 하얀 물결을 한껏 뿜어올려 아득한 밀림에 서리꽃세계를 수놓는데 돌격대원들과 인민들이 순결한 마음 다 바쳐 펼쳐놓은 희한한 얼음 조각 축전으로 하여 2월은 더욱 이채롭다.

사람들은 저저마다 얼음 조각 앞에서 떠날줄 모른다.

블세출의 령장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따르는 뜨거운 그 모습과 마음들이 낳은 2.16 경축 얼음 조각 축전!

것은 언제나 령도자의 마음속에 사는 건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의 심장속에서만이 분출될수 있는 열렬하고 순결무구한 총정의 결정체이다!

글 특약기자 전철주 사진 특사기자 리원국



2월의 백두산기슭에 활경을 펼친 얼음 조각 축전장



얼음 조각 개선문형식의 <강성대국대문>

눈 조각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

설날이 왔다.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게 될 뜻깊은 2010년의 설명절!

은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커다란 환희와 긍지에 넘쳐 올해의 설명절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수령님의 전사, 제자인 우리 인민의 숭고한 의리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 마다에서는 지난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국내 전환의 해로 빛내이시어 내 나라, 내 조국의 앞길에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길을 펼쳐주시고 강성대국선봉의 승진고사 울려 퍼질 령도의 그날을 앞당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와 감사의 정이 한껏 넘쳐나고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

## 내 조국의 희망 넘친 설명절

족이 있지만 우리 인민처럼 끝없는 행복과 희망,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투쟁에 넘쳐 설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설명절, 그것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만이 맞이할 수 있는 희망 넘친 명절이며 환희의 명절이다.

우리의 설명절에 가득히 넘치는 밝은 희망과 끝없는 승리의 신심, 거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불굴의 의지, 위대한 리상을 안고 세계의 첨단 기술을 확고히 돌파한 우리의 CNC 기술에 대한 커다란 긍지가 비껴있으며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여 우리 공업의 위력을 백배로 다진 크나큰 민족적자부심이 어려어있다. 또한 거기에는 지난해의 력사적인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사변들을 연이어 일어난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활동과 불패의 기상이 나래지고있다.

참으로 선군조선의 설명절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놀이 맞이한 환희의 명절이고 비약의 봄마를 타고 무성하게 솟구쳐 맞이한 승리의 명절이며 현

민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다지고다지는 경제기술적잠재력을 총괄받으며 2012년에는 거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힐 불굴의 의지에 넘쳐있는 환희의 명절이다.

뜻깊은 올해의 설명절을 맞이하며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달려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내 나라, 내 조국에 거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아 수령님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리고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할 의지가 수령님을 그리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끝없이 차고넘쳐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삼가 꽃다발을 드리며 수령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발라하는 맹세를 다지는 우리 인민의 의리깊은 모습은 우리의 천만군민이야말로 자기의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전사, 제자라하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민이 올해의 설명절을 더욱 뜻깊게 칠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락원의 거리 만수대거리를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에도, 북방의 철의 도시와 동해의 항구 문화도시에도, 신경을 자랑하는 법안리와 미곡리를 비롯한 농촌들에도 희망 넘친 설명절을 뜻깊게 맞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차고넘친다.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시고 더 활짝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수도의 금양봉사당에서는 설명절을 맞으며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갖가지 음식들을 봉사하게 된다. 올해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설명절을 맞이하는 수도시민들이 금양봉사당에서 특색있는 요리들을 맛보며 명절을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해주시었다.

당장진 65층을 맞이하게 되는 올해에 수도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더 많이 건설되게 되며 풍치아름다운 모란봉기슭에 일떠선 또 하나의 훌륭한 유희정에서 사람들은 인민들의 웃음이 울려들것이다.

현대회 2.8비날론련합 기업소에서 평평 생산되는 주체수-비날론수과 각종 화학제품들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며 온 나라 도처에 일떠

## 2월의 백화원

설명절을 앞둔 날 우리는 4월 15일소년백화원앞에서 결음을 멈추었다.

백화원에 펼쳐진 눈부신 은빛세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것이다.

자나무에도, 분비나무에도 떨기떨기 눈꽃이 피었고 길옆에도 눈송이들이 찬미미마냥 피었으며 한겨울에도 온실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다함없는 축인의 인사를 드려려고 꽃피는 철이 아닌 이 계절에 자연도 백화원에 눈꽃을 피웠는가.

우리에겐 눈꽃을 인 백화원의 풍경이 단순한 자연의 화폭으로만 안겨오지 않았다. 색깔도 울긋불긋한 꽃바다를 펼쳐놓은 백화원, 그러한 백화

원에 뜻깊은 2월 빛깔도 모양도 하나와 같은 눈꽃의 바다가 아득히 펼쳐져있었다.

그 눈꽃바다를 바라보느라니 저도모르게 생각이 깊어졌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주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뜻깊은 련설을 맺고 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아름다운 꽃을 피워 다함없는 축인의 인사를 드려려고 꽃피는 철이 아닌 이 계절에 자연도 백화원에 눈꽃을 피웠는가.

우리에겐 눈꽃을 인 백화원의 풍경이 단순한 자연의 화폭으로만 안겨오지 않았다. 색깔도 울긋불긋한 꽃바다를 펼쳐놓은 백화원, 그러한 백화

## 항구문화도시의 불야성

설명을 맞으며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에 활황한 불야성이 펼쳐졌다.

하늘의 별무리가 내렸는가, 해복은 수정과 진주들이 모두 솟아쳐왔는가, 동해기슭의 불야성은 마치도 전설속의 신비경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살아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습니다.》

짧은 겨울해가 지고 사위에 어둠이 깃들자 기다렸던듯 온 도시가 삼시에 한복의 거대한 불그림을 이루었다.

노루허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예로부터 장덕성이라고 불렀다는 한 섬에서 원산시의 불야성을 부감하는 정서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평양의 하늘가에 터져왔던 축로의 불꽃이 동해기슭에 자리잡은 항구문화도시에 고스란히 내려앉은듯, 아름답고 눈부신 별무리처럼 끝없이 펼쳐

## 불장식을 백광으로만 하라

불장식을 백광으로만 하라 나니 맛있고 단순해보이는 것이 마치도 사람이라면 눈이 없는 사람같다고 하시며 투박과 함께 내온과 메드를 배합한 불장식을 하고 불등을 주어 도시의 밤풍경을 더한줄 등도록 일깨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사랑속에 보다 이채로워진 항구문화도시의 불야성이다.

나라하면 그 시절 등에 사자 남을 지고다니는 불쌍한 배군들의 한숨소리만 들리던 땅, 손바닥이 절도록 소름을 굶어모아 그것을 팔아 연명하는 소금장수들과 사시절 찬바람, 세한 파도에 부대끼며 죽지 못해 살아 가는 등대지기들의 애달픈 울음소리가 가슴을 허비던 곳.

바로 그리하던 땅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의 락원을 꽃피워주시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야성의 도시를 펼쳐주시었다.

장덕성에도, 방파제에도,

## 은 정 어 린 라 조 료 리 봉사 창 광 종합 식 당 약 산 식 당 에서

뜻깊은 2월의 명절과 설명절을 맞으며 창광종합식당 약산식당에서 타조료리전문식당으로 새로 꾸려져 오를부터 봉사

을 타조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타조는 고기가 부드럽고 맛이 좋으며 영양가치도 높다. 리진을 비롯한 려수아미노산과 글루타민산, 아스파라긴산 등 20여가지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으며 아미노산성에서 소고기 못지않은 타조고기는 값진 건강식품이다. 목과 발목, 꼬리, 내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데 둘러져도 다 쓰이는 타조는 리용가치가 대단히 높다.

당의 은정속에 훌륭한 주방설비들과 집기류들을 고풍하게 갖춘 약산식당에서 타조료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타조료를 봉사하게 된다. 타조불고

기는 국수를 곁들여 봉사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어버이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창광음식점기름을 돌아보시면 식당을 찾아주시는 데로부터 각종 불고기를 전문으로 해오면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약산식당은 타조료리로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어버이 사랑속에 창광음식점기름에 특색있는 메기료리를 비롯해 봉사하는 금강종합식당에 세뽈을 꾸러지고 토장국을 전문으로 하는 은하수식당이 문을 연데 이어 약산식당에서 타조료를 봉사하게 되어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본사기자 정영화

# 자주시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스승

결출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로작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 는 불멸의 대강언설로 하여 오늘날도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으며 그 생명력과 견인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지니고있는 영도력과 품도,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위인의 인격적품성은 사상의 높이이며 위인의 위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이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력적 사상리론활동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발전공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71 (1982)년 3월 31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제사상의 창시과정으로부터 그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과 역사적의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주제사상의 총서이며 자주시대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명도자이다.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이 력사적인 로작을 격정속에 받아안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하였던가. 그들가운데는 프랑스 파리 제1종합대학 교수였던 뵈에르 부도도 있다. 여기에 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쓴 글의 한구절이 있다. 《나의 동료들에게 진실로 부러워하건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자로서, 지성인으로서의 향시를 가지고 전리를 탐구하려는 조선에 와서 주제사상을 배우라.》 뵈에르 부도도 말하면 프랑스는 물론 유럽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부도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교신자였다. 그러나 그가 돌연히 주제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로 된것은 인상깊은 조선 방문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접한 후부터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주제사상은 그가 일생동안 세계의 그 어느 서적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불멸의 대강언설이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는 사람이며 사람들이 세계를 개조할수 있습니다.》 주체강령은 명제들로 딱딱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을 한구절 또 한구절 탐독할수록 뵈에르 부도도는 커만

가 자신의 대한 환멸과 부끄러움으로 하여 얼굴을 들수 없었다. 사실 그는 우리 나라에 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철학부문에서는 제노라코 자부해온 사람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을 깊이 탐구하는 과정에 그는 사람을 한갓 생물학적으로만 보아오던 자기의 견해가 잘못되었던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였으며 이제라도 인생의 새 출발을 하여 여생을 주제사상연구보급사업에 바치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귀국후 그는 조선방문소감을 묻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보여주시어 이렇게 말하였다. 《역사 사상리론의 중심도 수령이라는것이 틀림없소. 어 는 고명한 철학자가 일생을 바친다 해도 이런 명제들은 내놓지 못할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만 내놓으실수 있는것이요. 그러나 그 어떤 새로운 사상리론적문제들에 대한 해명이나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대담도 고전적에서 아니라 그의 저작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이 내가 도달한 결론이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받아안고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에 매혹된 사람은 비단 뵈에르 부도도만이 아니라, 일본 에히메 현대조선문제

연구소 대표인 나다 다카시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흥분속에 받아안고 주제사상을 인생의 참된 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해탈로 고이 간직한 사람이다. 시인인 그의 간절한 소망은 인간의 참된 삶과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는것이였다. 하지만 악몽장식의 생중법칙이 존재하는 색고 병든 자본주의일분사회에서 그것을 실현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명시창작을 갈망하며 대대기던 그는 정신적방황속에서 헤매이였다. 이러한 그에게 창작적흥분과 열정을 안겨준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접한 때였다. 로작을 받아안고 주제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후부터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창작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의 창작활동은 주제사상을 더욱 발전공부하시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숭가움을 창작하는대로 이어졌다. 그는 자기가 창작한 시집 《21세기의 태양찬가》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이를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제사상은 자주시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생 불멸의 지도사상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이이다. 본사기자 서남일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신문과 기네바송들이 특징하고 기념보도를 하였다. 메히코신문 《우니다 드 나세오날》 1월 31일은 김정일성장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정을 모시고 웅근 한탄 특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월 16일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명도자의 탄생일이다. 김정일명도자는 국제사회에 공인된 결출한 사상리론가이다. 그의 사상리론활동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사회주의의 조신의 시조이신 김정일주석의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이어가는 철저한 계승성으로 일관되어있는것이이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만민의 위대한 어버이시며 력사에 전무후무한 사상리론의 거장이다. 결출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제사상은 자주시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생 불멸의 지도사상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이이다. 본사기자 서남일

## 결출한 사상리론가, 비상한 정열가

합 조

중국과 메히코가 4일 두 나라사이의 협조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2일 이란과 세네갈은 농업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4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발전노력

가메론정부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올해에 농업, 수송, 에네르기, 광업 등 분야의 22개 발전계획을 실현하는데 많은

활동을 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그 어떤 사상리론문제에든지 기성의 리론이나 공식,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신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천명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를 새롭게 밝히신것,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강조하신것,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것 등 그이께서 전개하신 모든 사상리론적문제들은 독창적인 사고와 창조적열정으로 비판적인 총자를 끌어들여 참신하게 풀어나가신것들이다. 셋째로, 현실발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시대성이 뚜렷한 사상리론활동이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비상한 통찰력과 정치적식견으로 사회발전의 특징과 추이를 신속정확히 분석평가하시고 시대의 요구를 예민하게 포착하신데 기초하여 사상리론활동을 펴어나가신다. 넷째로, 전개되는 사상리론적내용의 폭과 깊이가 매우 심원한 사상리론활동이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내용인 사상리론은 어느것이나 다 철학적깊이가 있고 체계적정연하며 논리가 심오하다. 그이께서 발표하신 《새로운 혁명론을 건설할데 대하여》, 《영화예술론》, 《가극예술에 대하여》를 비롯한 문학예술분야와 관련한 로작들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문학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그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어있으며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어있다. 다섯째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다방면적인 사상리론활동이다. 그이께서 저술하신 로작들에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모든 부분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다 포괄되어있다. 그의 로작들이 혁명과 건설의 총서, 대백과전서로 불리우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1일 기네라지오방송은 《비상한 정열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명도자는 비상한 정열을 지니신분이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대학시절에만도 1400여건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 나라와 인민을 영도하시는 분명한 속에서 집필하신 수많은 로작들은 세계에 널리 알려졌었다. 조선의 모든 기념비적창조물들은 김정일명도자의 정열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다. 누구도 따를수 없는 정열로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주제사상 탐과 개건문, 서해갑문 등을 일떠세우는 사업들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이 100% 자체의 힘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렸고 그의 범상치 않은 정열의 산물이다. 《정열, 그것은 위대한 창조인 원천이다.》, 이것은 김정일명도자께서 내놓으신 수많은 명언들의 하나이다. 또한 그이의 비바람 정열, 양심한 정력에 넘쳐진 현저지도는 오늘 조선인민이 강대국 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이 나라의 국제방송과 7개 민족어방송도 이날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나라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을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

최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체제전복시도가 위험수위를 넘어가고있다는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을 8일과 9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트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최근 공화국북반부의 명해, 명공, 명로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군사적도발과 체제전복을 노린 정략타락수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다고 까밝히고 남조선당국은 민족적해해와 협력, 평화통일과 번영에 역행하는 모든 모략

## 평화적 핵 개발 권리를 주장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최근 TV방송연설에서 나라의 평화적핵개발권을 주장하였다. 그는 저자들이 이란에 대한 내정간섭과 경제제재책동에 중국과 메히코를 반대하고있다. 그것은 실례를 면치 못하고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저자들이 이란에 대한 내정간섭과 경제제재책동에 중국과 메히코를 반대하고있다. 그것은 실례를 면치 못하고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저자들이 이란에 대한 내정간섭과 경제제재책동에 중국과 메히코를 반대하고있다. 그것은 실례를 면치 못하고있다고 인정하였다.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합 조

중국과 메히코가 4일 두 나라사이의 협조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2일 이란과 세네갈은 농업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4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발전노력

가메론정부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올해에 농업, 수송, 에네르기, 광업 등 분야의 22개 발전계획을 실현하는데 많은

## 나토의 책

로씨야구축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프체브가 7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나토의 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나토가 다른 나라들의 리익을 고려함이 없으며 어떤 저들의 리해판정에 맞게 결정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로씨야의 우려를 불러일

## 공공부문 근로자들 교섭

도이쉴랜드의 각지에서 3일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파업이 벌어졌다.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일어난 파업에는 수많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파업으로 공공운수수단들의 운행이 중지되고 병원들이 문을 닫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의 분열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가 7일 TV방송연설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미국의 분열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콜롬비아에 전개된 미군 사기지들은 지역나라들의 《단결에 상처를 입히는 비수》라고

## 이스라엘의 부당한 제

©에바는사회전보당 위원장 알라드 쉘블러트가 5일 성명을 발표하여 수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협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자들이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공격기도를 공언하며 드레넬보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을 뒷받기로, 극도에 달한 위협책동으로

## 위협책 동과 안을 배격

부당한 제안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상이 중동평화회담의 시급한 제개를 운운하면서 그를 위한 그 무슨 제안이라는것을 내놓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거기에는 그 어떤 새로운것도 없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중지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민족당국의 확고한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 경제 침체

©미상무성이 1월 27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12월에 전적으로 살림집 판매량이 전격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산요》, 《샤프》 회사에서도 각각 447억 4000만부, 85억 9000만부여치의 손실이 났다 한다. 3일 《스미도모》강철회사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기업에서 입은 손실액이 574억 8000만부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후지중공업》 회사에서도 152억 2000만부여치의 손실이 났으며 《미츠비중공업》 회사에서는 리윤이 전격적으로 감소하여 84.6% 감소되었다 한다. 4일 《히다찌》회사는 지난

## 범 죄 성행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시에서 7일 총기범범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속에서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자아냈다. 이날 시내 한 유류장박에서 정예경찰의 범격자가 사람에게 불태우고 총질을 하여 1명을 죽이고 4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다 한다. 1일본에서 강탈, 강간 등 각종 범죄가 계속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있다. 1월 15일 일본경찰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강행된 범범행위 수가 약 170만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팔라르비아지역에서 1월 12일 경찰행위를 일삼던 범범그룹빠가 드러나 17명이 체포되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민족경제를 자립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은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적번영의 중요한 단계이다. 오늘 자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위한 활동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 다목적발전소에 힘을 넣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말까지 다목적발전소를 100만 400ha로 늘일 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다목적발전소에 맞는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난해 르완다에서는 농업생산에 힘을 넣는 결과 그 전체에 비해 강령이 생산량은 10여만, 감자생